2024년 여름호
제115호 2024년 6월 3일
서울대 기독선교회 소식지

진리는 나의 빛

창간 1994년

† 올해의 말씀 †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시 148:13)

발행인 • 임현우 / 편집인 • 권순희 최하영 / 학생기자 • 장동원 문예은 / 발행처 • 서울시 관악구 서림7길 대학촌교회 / TEL • 888-9111

종강예배

서울대기독인연합 종강예배가 6월 3일(월) 6시 30분에 26동 B101호에서 열린다. 이번 종강예배 말씀은 양명환 목사님(오륜교회)이 담당한다. 주제는 '밀알의 사랑'이며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이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단과대별 식사 교제가 예정되어 있다.

투요 기사 안내

1면 간사칼럼 … 임대훈
2면 서기연 대표 취임사 … 이다은
중앙위원의 글 … 최성호
3면 개강예배 후기 … 김수환/김해수
에클레샤 독후감 이벤트 … 강성민
4, 5면 진나빛 30주년 기획 … 편집부
6면 대학촌교회 50주년 기념 글 … 성기문
비전스쿨 수료 후기 … 추수원
7면 기독인대학원생모임 엠티 … 곽성열/이인영
기독인대학원생모임 신앙오티 … 홍원의
서울대 비전스쿨 2기 모집
8면 개강예배 사진

간사칼럼

마르투스 1학기 개강 모임. 우측 2번째 임대훈 간사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부터 '마르투스'라는 서울대학교 기독교 동아리의 간사를 맡고 있는 임대훈입니다. 마르투스를 잠깐 소개하자면 서울대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직원 및 서울대병원 구성원이 학기 중 매주 관악과 연건캠퍼스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캠퍼스에 복음을 증거하고자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아울러 저는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학생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학생활동이 많이 위축되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대학 생활에 대한 부푼 기대를 가지고 새내기대학에 참가하는 신입생들의 밝고 희망찬 모습을 볼 때면 서울대학교의 밝은 미래가 그려지기도 했고 또 학교 축제와 동아리 소개 등 다양한 학생 행사가 다시 진행되며 캠퍼스가 학생들의 활기로 채워지는 현장을 함께할 때는 학생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뛰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상당한 시간을 캠퍼스에서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내가 다시 크리스천으로서 2025학년도 새내기가 된다면 나는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해나가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한국 사회와 대학 캠퍼스에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 자신에게 던진 질문에 대한 답들을 '대학 시절에 세워야 할 네 개의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첫 번째 기둥은 '내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향해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자신에 대해 정의를 하는 것은 삶의 목적과 방향뿐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이러한 정체성의 확립은 우리의 삶을 빗나가지 않게 해 주고 삶의 순간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 줍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 이러한 삶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내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경험이 있느냐에 대한 확신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이자 탁월한 복음주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당시 기독교가 연약한 모습인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한 것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변의 환경에 따라 또는 삶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방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설교하면서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며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에 관하여 분명히 알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노라'는 에베소서 2장과 요한일서 5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알아야 한다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 성인으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대학 생활 그리고 인생 설계에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 순간 재미있고 흥미 있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어딘가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버튼 하나를 누르는 순간 수많은 미디어와 SNS 등을 통해 내가 알고 싶은 정보, 내가 좋아하는 내용의 콘텐츠들이 끊임없이 내게로 와서 나를 재미있게 해 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성적인 현대인으로서 시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또한 그 아낀 소중한 시간을 이러한 재미에 소모하고 있는 어리석음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심심함을 참지 못하고 점점 사색하는,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삶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 아닙니다. 많이 읽을수록 더 많이 알게 되겠지만 바리새인들과 많은 종교인들을 보게 될 때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꼭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 나의 마음에 전달될 때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님의 조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다수의 학생이 대입에 맞춰 학창 시절을 보내다 보니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생각하고 사색하는 훈련이 잘 되어있지 않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묵상을 해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이 중심에서부터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말씀 묵상 훈련이 있다면 참여해 봐도 좋고 또는 말씀 한 장을 읽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천천히 생각해 본다든지, 60구절 성경 암송을 해보는 것들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시냇가에 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시편 1:3)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을까요? 좋은 땅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좋은 땅에 심어진 나무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밭이나 가시밭 길가에 심어진 나무는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맺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만 또한 성도가 어디에 누구와 있어야 하는지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학생이 대학에 입학 후 가족과 교회 성도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많은 자유를 만끽하며 점점 신앙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近朱者赤 近墨者黑(근주자적 금묵자흑)이라는 고사처럼 누구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마르투스를 함께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학생들 서로가 주님 안에서 서로에게 좋은 친구로 위로와 격려와 도전이 되며 학창 시절을 함께 마무리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나 혼자 두지 않으시고 성도들과 교회에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대 캠퍼스에도 나 혼자 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친구들을 함께 두셨습니다. 나를 열매 맺게 하는 아름다운 시내가 되어 줄 좋은 친구들과 교제권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중요한 기둥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기둥은 가장 세우고 싶지만 또 세우기 싫은 기둥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명령임과 동시에 전하는 순간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며 또 그로 인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전도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수확을 바라며 열심히 농사를 짓는 농부처럼 우리는 전도에 나의 삶을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

대는 복음을 잘 듣지 않는 시대이기에 전도하는 순간 가까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조롱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서의 내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겨 전도하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지고 점차 전도를 할 생각조차 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괜히 겁먹었던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하는 자체로 우리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한 친구라도 만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친구가 나와 함께 교회나 학내 기독동아리에 나오기라도 한다면 나의 신앙이 놀랍게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실제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힘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 점점 식어가는 시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의 열정조차 사라져 가는 시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울대학교 캠퍼스로 부르셨습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처럼 캠퍼스를 깨우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임대환(마르투스)

서기연 대표 취임사

변하지 않는 사랑과 담대함의 이유

안녕하세요, 24년도 서울대기독인연합 대표로 섬기게 된 영어영문학과 이다은입니다. 저는 22년도에 서기연 중앙위로, 23년도 1학기에 선교단체 대표로 섬긴 후 작년 2학기에 잠시 캠퍼스를 떠나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감사한 것이 참 많았던 경험이지만 영국 땅과 그곳의 캠퍼스에서 국적과 문화를 넘어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경험이 무엇보다 깊게 남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울대 땅을 떠나있으면서 서기연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낯선 땅에서 새롭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리움이었을 수도, 매일의 일상을 함께 보낸 공동체가 곁에 없다는 허전함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매 학기 개강 때와 종강 때마다 백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였는지를, 한 단체 한 단체에 학생들이 모여 말씀을 바탕으로 하루하루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삶에서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를, 우리를 위해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바라보았을 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선교단체와 서기연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19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각 단체에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개인주의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캠퍼스의 분위기는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혼란스러운 사회 가운데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의 무게감은 이전보다 무겁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시46:1-3)

서기연 대표를 놓고 기도하였을 때 예배를 통해 깊게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단체의 사람 수가 적어지든지, 예배를 드릴 장소를 구할 장소를 찾기 힘들어지든지, 우리를 둘러싼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변하지 않는 서기연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개강예배의 말씀처럼, 우리의 사랑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고전13:4-8). 우리는 또한 이 사랑을 각자의 공동체에서, 서울대기독인연합 안에서 누리는 것을 넘어 서울대학교 캠퍼스로 전하여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삶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모두가 꺼리는 일을 사랑으로 기꺼이 맡으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쉽지 않은 이 시대이지만 오히려 이 시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유익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대표로서 섬긴 지 몇 달 되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사역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라보고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고 기쁘게 느껴지는 요즈음입니다. 이 자리로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다은(영어영문학과 21)

중앙위원의 글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샘물, 생수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하는데, 나는 끊임없이 목말랐다. 공허함, 허무함, 외로움, 기쁨 없음을 경험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삶이 겨우 이 정도인가?" 의문이 들었다. 신앙의 기초를 다루는 일대일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자신 있게 가르치지 못했던 적도 있다. 내가 그것을 경험해 본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 (요 10: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 (요 4: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의문이 지속되던 중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비춰 보게 되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런 생수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근원을 버리고 웅덩이를 팠기 때문이라고 하신다. 이 웅덩이는 그냥 웅덩이가 아니라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풍성할 리가, 충만할 리가, 기쁘고 평안할 리가 없다.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기대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약속하는 가시적인 것들(돈, 명예, 좋은 차, 집, 여행, ~)이 생명을 줄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다. 나에게는 자아실현(멋있는, 능력 있는 삶), 인정받는 삶, 재력,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런 것들이다. 때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것들은 내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다.

- (렘2:13)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 건지 생각해 봤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가지 주목해야 하는 원리들은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착하고 성실하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사랑)하는 것. 사회의 약자 섬기길 잊지 않는 것.

- (미6:8)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 (사 29:13)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 (사 1:16-17)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 (약 1:27)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나의 성취, 노력, 지혜, 방식을 통해 얻어내는 생명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길 원한다. 이 생명은 삶의 목표가 아니라, 매일 누려야 할 약속인 것 같다. 계속해서 문 두드리며 이 사실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삶 깊이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제 삶을 주님과 함께 기쁘게 동행하길 원합니다.

- (계3: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후기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중앙위원으로 서기연을 누리고 있는 최성호입니다. 2023년 1월에 개인적으로 작성했던 글을 조금 수정해서 작성했습니다. 조금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비슷한 주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스스로에게 이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 되길 간구하는 마음으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졸업하게 되었는데, 제 대학 생활을 기억에 남을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준 지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나인가 싶으면..? 네 you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호(동물생명공학과 18)

개강예배 후기

예비하심을 기도

학교에 입학한 지 이틀밖에 안 된 시점, 같은 교회를 다니는 YWAM 대표 선배님을 통해 서기연 개강예배 찬양팀에서 베이스로 섬기게 되었다. 생각해 보면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망설임 없이 섬기겠다는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 신입생인 내가 섬겨도 되는 자리인가, 그만한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섬겨도 되는 자리인가 등 정말 많은 고민들이 결정 후에 찾아왔다. 내 뜻대로 섬기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가 더더욱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자리라고 생각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뒤 수많은 걱정이 감사함으로 바뀌어갔다. 신입생인 나에게 서울대학교 기독인 지체들이 모이는 개강예배에서 섬길 기회를 주시고 실력 없는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더욱 풍성하게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이 벅차게 감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 생활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감사했다.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많은 걱정이 있었다. 당장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때문에 친구를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아 걱정됐고, 내가 지금껏 속해 있던 공동체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 처음이라고 생각이 들자 두려움도 생겼다. 절대 대학 생활과 신앙생활을 분리하고 싶지 않은데, 세상적인 고민에 사로잡혀 어떻게 내 신앙을 지켜나갈지에 대한 고민은 정작 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한 나에게 개강예배에서 섬기게 된 일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위로의 응답 같았다. 개강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귀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다. CCC (대표)순장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서기연 대표님을 통해 CMF에서 활동하고 계신 같은 과 선배님과도 만날 수 있었다. 이 낯설고 차가워 보이는 대학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신앙을 지켜나갈 동역자와 공동체를 예비하여 주실 것이며, 절대 나를 내버려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서울대학교 지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향해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이 경험을 통해 서울대학교 캠퍼스의 복음화라는 큰 꿈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선물해 주셨다.

대학 생활의 시작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열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다. 의료계 상황이 좋지 않아 그다지 순조로운 신입생 생활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CCC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고 있다. 또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종강예배에서 베이스로 다시 한번 섬기게 되었다.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섬기게 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오랜 기간 동안 기도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서울대학교 지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 자리를 섬기게 되길 소망한다.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할 때 반드시 캠퍼스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날이 올 것을 확신하며,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김수환(의예과 24)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서기연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JOY와 인기연에 소속되어 있는 22학번 영어영문학과 김해수입니다. 이번 2024년 봄학기 개강예배에서는 영동교회 이지열 목사님께서 〈더 깊게 복음 안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를 주제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걸 믿고 사는가?"였고 두 번째 질문은 "왜 성도들조차 복음에 무관심할까?"였습니다.

두 질문을 통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의 믿음 상태가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지열 목사님께서는 복음 그 자체의 운동성과 회개(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대상이 아니라 감정적인 반응 혹은 초월적인 경험을 원한다며 스스로 복음이 필요한 존재, 죄인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시면서 마무리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느껴지는 게 많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에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에도 큰 감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정도의 삶의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신을 믿기에는 세상에 슬픈 일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이상하게 계속 메말라갔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하게 찾고 있었지만 무엇을 찾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고 무엇보다 제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에는 너무나 확실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알고, 그 사랑을 믿으며 어제보다 오늘, 복음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무엇보다 캠퍼스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매우 감사한 개강예배였습니다.

김해수(영어영문학과 22)

에클레샤 독후감 이벤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지옥의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 웜우드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악마의 입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인간을 '환자', 하나님을 '원수' 등으로 표현하며 그들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편지의 형식으로 깨달은 점들과 느낀 점을 적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웜우드에게

대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지금 내가 너에게 보낸 편지 중 몇 개가 인간들에게 유출된 모양이다. 어떤 못된 인간 하나가 편지들을 엮어서 책으로 냈다더구나. 나 참, 이때까지 원수나 기독교에 관해서 설명한 책은 많이 봤어도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다니.. 이건 전부 네가 편지 관리를 잘못한 탓이다. 그 안에 우리의 계략과 작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게다가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게 우리를 향한 비웃음이라는 걸 깨달아버렸지 뭐냐! 저 아래 계신 우리 아버지가 널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거다.

그 책이 퍼져서 '그 환자'까지 읽었다는 이야기를 한국에 있는 후배에게 들었다. 상황이 영 좋지 않으니, 웜우드 네가 가서 손 좀 써봐라. 이번에도 헛짓거리하면 정말 가만두지 않을 테니 각오해라. 보아하니, 그 환자는 우리의 편지를 모아놓은 그 책을 인상 깊게 읽은 것 같더구나. 그래 뭐 거기까진 좋은데, 우리의 존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게 낭패다. 내가 너에게 보낸 편지에 "다 돼도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 하고 말한 부분이 정말 본질임을 알아 버린 것 같다. 하지만 아는 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 정말 그대로 사느냐, 매 순간 그렇게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선택의 순간에 가만히 있을 우리가 아니지 않냐, 그렇지? 물론 원수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지만 말이다.

그동안 우리는 애써서 우리의 모습을 감춰왔다. 때로는 천사로 변하기도 하고, 원수로 변신하기도 해서 그 환자에게 나타났었지. 그런데 결국 들통이 나버렸다. 우리의 존재를 알아버렸지만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는지 절대 유출되어서는 안 돼. 때마침 좋은 전략이 떠올랐다. 환자가 우리에 대해서만 집중하도록 만들어라. 그놈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모든 생각이 다 우리가 주는 생각이라고 믿게 만들어라. 그래서 심지어 원수가 주는 생각조차도 우리가 주는 것이라고 믿게 하는 거다. 그러면 환자는 오히려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 할 것이고,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할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서 원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다. 진정한 생명의 근원인 원수를 바라보지 못하게만 한다면, 우리에게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우리를 내쫓으려고만 한다면, 그다음 단계들은 순탄할 것이다.

다만, 자기 힘으로 노력하게 만들어라. '악마의 꾐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라며 다짐하게 만든다든가,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괜찮아.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우리를 경계하게 만들어라. 우리를 내쫓으려고 원수를 찾는 건 못하게 해야 한다. 원수를 의지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원수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걸 너도 잘 알고 있겠지?

최근에 얻은 정보로는 그 환자가 영적인 활동을 이것저것 한다고 들었다. 그렇게 열심이 있는 놈은 또 방법이 있지. 그런 영적인 행위들 - 신앙 서적을 읽고, 성경을 보고, 사역들에 참여하는 행위 - 의 처음 목적은 원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원수의 나라에서 사는 기쁨을 위함이지. 하지만 그 목적은 희미해지기 마련이다. 목적을 잊게 만들고 그 행위 자체에 집중하게 만들어라. 원수를 생각하는 마음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습관적으로 그런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목적은 사라지고 수단만 남게 만드는 거지. 아니면, 그런 행위를 하는 자기 자신에게 도취하게 만들어라. 예를 들면, '아, 내가 신앙 서적을 이만큼 읽다니 난 너무 대단해!' 같은 생각 말이다. 처음 가졌던 의도와 마음을 텅 비우게 해서 껍데기만 남기는 거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회의에 빠져서 그런 나쁜 행동들을 다 그만둘 것이다.

어쨌든 원수를 생각하는 마음만 없애면 모든 것은 만사형통일 것이다. 다른 건 다 돼도 그놈의 관심이 원수 그 자체에 쏠리는 것만 막아라. 원수의 나라 그 자체를 소망하는 마음만 들지 않게 해라. 원수에게 향하는 고개를 살짝 돌려서, 그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도록 하면 된다. 아무리 네가 무식하고 무능력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저번엔 네가 나를 실망시켰지만 이번엔 그러지 마라.

너를 아끼는 삼촌, Screwtape.

강성민(재료공학부 석박사통합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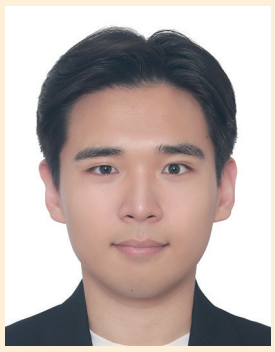
진리는 나의 빛 30주년 기획

기자로 함께한 얼굴들

1994년 창간한 본지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다. 긴 세월 본지와 함께해주신 독자 여러분, 기고자 여러분, 서울대 기독인 공동체와 대학촌교회에 감사드린다. 이를 기념하고자 본지와 함께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소소한 기획을 마련했다. 오랜만에 지면을 비추는 반가운 얼굴들과 추억을 나누어보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고민해보았다. 금번 기획이 앞으로 새로운 30년을 나아가는 밀알이 되길 소망한다.

한상휘(2016-2018년 학생기자/화학생명공학 박사 수료)

이은혜(2019년 학생기자/아동가족학 박사과정)



이재백(2020 학생기자/언어학과 19)

장동원(2020~현재 학생기자/중어중문학 석사과정)

1. 안녕하세요. "진리는 나의 빛"(이하 "진나빛")은 오랜만이시지요? 그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상휘 :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교육과 15학번 한상휘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해병대 장교로 백령도에서 2년간 군 생활을 하였고, 2021년에 본교 화학생물공학부 대학원에 와서 현재 박사 수료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동아리에서 만난 자매와 결혼도 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 입학한 지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가는 것을 보니 얼른 졸업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은혜 :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대학원생으로 학부와는 한 발짝 떨어져 지내고 있었습니다. 학부 졸업 직전인 2020년에는 서기연 중앙위원을 한 번 더 했었고, 대학원에 입학하고 나서는 기독대학원생 모임에 참석하며 교내 크리스천들과 교제를 이어갔던 것 같네요. 가끔 전 중앙위원들끼리 모여 삶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재백 : 안녕하세요, 저는 선교단체 JOY와 인기연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이재백이라고 합니다. 학생기자로는 2020년도에 1년간 섬겼고, 그 이후로는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 평범한 복학생의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장동원 : 어느덧 석사과정에 들어온 중어중문학과 장동원입니다. 여전히 인기연과 진나빛에서 은혜를 누리며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섯 해째, 지면을 통해 뵙고 있지만 대학원생이 되어 다시 인사드리려니 쑥스럽습니다.

2. "진나빛"은 언제,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한상휘 : 저는 학부 2학년인 2016년 가을학기부터 졸업 전인 2018년 가을학기까지 "진나빛" 학생기자를 맡게 되었고, 이은혜 양에게 인계를 해주었습니다. 학부 시절 매주 월요일 아침기도회를 나갔었는데, 매주 기도회에서 뵈었던 유요한 교수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셨는지 학생 기자를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진나빛" 사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은혜 : '진나빛' 기자로 2019년부터 한 해 동안 섬겼습니다. 계기는 2018년에 같은 중앙위원이었던 상휘 오빠가 제게 인턴을 해보지 않겠냐는 물음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체험형 인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환형 인턴이었더라구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진나빛"에 대한 개인적인 애정도 있었습니다. 입학 당시 개강예배에서 "진나빛" 소식지를 처음 접했었습니다. 뭔지 모르고 집에 가져온 종이를 찬찬히 읽어보며 흥미로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글을 읽으며 누군가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개·종강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진나빛" 소식지는 꼭 들고 와서 보관해두었다가 생각날 때 꺼내서 읽어보는 그런 따뜻한 편지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제가 기자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요. 누군가에게 마음의 위로를 전달해줄 수도 있고, 감동을 전해줄 수도 있는 "진나빛"의 역할에 그 의미를 느꼈기 때문에 기자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백 : JOY의 존경하는 한 선배께서 학생기자 자리를 소개해주셔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문대생이라 글쓰기를 잘 하고, 좋아할 것이라는 오해를 주로 받곤 하는데, 그 선배께서도 그런 편견을 갖고 추천해주신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체험으로서의 자리를 기대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JOY와 인기연 밖의 교내 기독인 공동체들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기자를 시작함과 동시에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 거의 모든 사역이 취소되고 기획들이 취소되며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이 캠퍼스에도 세워질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시는 여러 지체들의 노력을 오히려 더욱 선명히 볼 수 있어서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장동원 : 꼬드김에 쉬이 넘어가는 성격입니다. 모 선배가 2020년 "진나빛" 100호 간행을 앞두고 인원이 더 필요하다며 제게 특채(?) 기자 자리를 제안했는데, 냉큼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편집인 이경건 형이나 이재백 기자 등과 만나서 작업하기도 어렵고, 오자마자 100호 문집을 편집하며 동시에 가을호 준비도 하려니 상당히 정신 없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편집을 마치고 결과물을 받아들 때, 가을걷이를 마친 농부 같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직도 "진나빛"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 기억에 남는 글이 있었다면 어떤 글이 있었나요?

한상휘 : 2017년 여름호에 실렸던 기사 중 "시대를 변화시키는 기독 청년을 꿈꾸며: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김회권 교수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인터뷰 기사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편집장이셨던 유요한 교수님과 이경건, 조예상 선배님들과 함께 숭실대학교를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진지했지만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 인터뷰를 진행하고, 맛있는 식사를 하고 왔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당시 한국 교회와 기독인에 대한 시선이 차갑고 예민했던 분위기 속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학우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어려움과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청년들에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신선한 시각으로 한국 교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 가야할 지 담담하게 말씀 전해주신 김회권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며, 2017년 여름호 김회권 목사님 인터뷰 기사를 다시 읽어보았는데요, 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도전과 울림을 주는 좋은 글 같습니다. "진나빛" 독자분들도 구글에 "진나빛 90호"라고 검색하시면 대학촌교회 게시판을 통해 PDF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은혜 : 당시 편집장이었던 경건 오빠가 다양한 글을 기획해주셨는데요. 기획 기사 중 하나로 졸업 후에 각자의 학문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선배님들을 인터뷰한 것이 있었습니다.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어떻게 삶을 살고 계신지, 그리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값진 기회였습니다.

이재백 : "진나빛"의 많은 기사가 캠퍼스 안팎의 믿음을 함께하는 동역자들로부터 기고받은 글로 이뤄지지만, 학생기자가 직접 써야 하는 기사들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중 제가 썼던 기사 하나가 특히 더 기억나는데요, 2020년도에 신천지 등 이단 단체에서 여러 학내 선교 단체들에게 우편물

을 보낸 사건의 기사였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기사를 제가 처음 맡게 되었을 때, 많은 것을 찾아보아야 했습니다. 그 전에는 기사 비슷한 것도 써본 적이 없던 터라 기사를 쓸 때 지켜야 할 규칙이나 문장 스타일 등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며 상당히 긴장한 상태로 썼던 기억이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장동원 : 다른 선배 기자님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통 기사를 마감 직전에 부랴부랴 쓰는 편이었습니다. 글감이 떠올리지 않아 마지막에 꾸역꾸역 쓰는 일도 있었구요. 그런데 한번은 엄청난 감동과 함께 일필휘지로 써내려간 기사가 있었습니다. 2022년 봄호에 실렸던 "하나님 저는 나목처럼 기다릴래요"라는 기사였습니다. 그해 겨울,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열렸던 故 박수근 화백 회고전을 다녀오고 박 화백과 아내 분의 삶과 신앙에 대해 적은 글입니다. 전시장에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 저는 모네처럼 훌륭한 화가가 될래요"라는 박수근 화백의 어린 시절 일기 문장이 붙어있었습니다. 그 말을 보는 순간, 그림에서 다른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그 전에도 화집을 보면서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그분의 삶에 주어진 수많은 역경과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부부의 신앙, 그리고 극복과 승화를 보여주는 그림이 제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해 겨울이 유난히도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걸 따뜻하게 녹여주었지요. 감동과 회개의 눈물을 전시장에서 흘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1시간 반만에 완성했습니다. 그 기사는 읽으신 분들 반응도 좋았고, 아직까지도 그 글 다시 읽고 싶다며 보내달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억에 남는 글쓰기 경험일 것 같습니다.

4. "진나빛" 기자 시절 소개하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다면?(감동, 실수 등)

한상휘 : 특별하게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없고, 편집회의 때마다 존경하는 유요한 교수님께서 맛있는 식사를 사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유요한 교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은혜 : "진나빛" 기자를 하던 2학기에 휴학하고 회사 인턴을 하는 시기와 겹치게 되었어요. 그 바람에 학교 상황을 자세히 모르지만 연락하고 기사를 모아야 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며 "진나빛" 소식지를 나눠주는데, 그 소식지를 나눠줄 때의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각자가 최선으로 섬기는 그 마음을 알고 계시고 사랑스러워하실 주님의 마음이 더욱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재백 : 감사하게도 제가 학생기자로 있을 적에 "진나빛"이 제100호를 맞이하게 되어 관련하여 여러 특집도 진행했고, 기념문집도 발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일로도 마음으로도 풍성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다만 꽤 공들여서 발간한 제100호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직접 만나서 예쁘게 인쇄된 모습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배포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운 마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동원 : 기독인 지체들을 모시고 특별 기획 대담을 여러 차례 진행했는데 이 대담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첫 번째 대담은 2021년 가을호에 실린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연합을 지키고 있는 새내기 기독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후배님들의 열심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대담은 인공지능 시대의 기독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에 다니는 기독인 선배 두 분과 편집인 이경건 선배, 거기에 저까지 넷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술에 대해서도 해박하시고, 신앙도 훌륭하신 선배들과 제가 감히 대등하게 끼어서 이야기하다니, "진나빛" 이름 덕에 이런 영광스런 자리를 가지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또 기술 발전에 인문학자로서 어떻게 살아야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역시 하나님 안에서 답을 구하면 되는구나하는 깨달음으로 행복해진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5. 내 인생에 "진나빛"은 어떤 의미였나요?

한상휘 : 저는 예수전도단 동아리 활동을 하였는데요, 2016년 1학기 대의원회의에 동아리 선배 대신 제가 대리출석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당시 학교 사정을 잘 몰랐던 제 눈에는 서로 다른 기독 동아리 선배들 사이 하나됨이 부족하고, 서기연 공동체가 생각보다 차가운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것도 그럴 수 있는 것이, 기독 학생들은 대부분 본인 단과대 기도 모임 혹은 기독 동아리에만 열정을 가지고 활동을 하지 서울대학교의 복음화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가지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바쁘고 동아리 활동만 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입니다. "진나빛" 학생기자를 하면서 저는 다양한 기독 동아리 사람들과 단과대 사람들을 만나고 기사를 부탁드리고 받으며 서기연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고 옳은 것이라도, 내가 관심을 가져야 내게 의미가 생깁니다. 서기연 지체 여러분 모두가 "진나빛" 기자를 할 수는 없지만, 개·종강 예배 때마다 진나빛 신문을 꼼꼼히 읽으신다면, 그것이 서울대학교에 관심을 갖고 사랑을 실천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은혜 : 개인적으로는 저의 성격이 다뤄질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글을 써달라는 것을 부탁하는 일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너무 바쁘셔서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 거절에서 오는 실망감을 느끼기 싫어서 요청 연락을 드릴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항상 요청 드린 분들께서 수락 여부와 상관없이 따뜻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이었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듯이요. 그래서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진나빛"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백 : 캠퍼스 안의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신분으로 각자 이 캠퍼스 위에 세워질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 감사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가까이서 보며 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키울 수 있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장동원 : 저는 독인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제 주변에 자연스레 신앙을 권면해줄 분이 없습니다. 제가 해태해지면 끝이지요. 그런데 "진나빛"이 있어, 분기별로 제 삶, 제 믿음, 다른 기독인 지체들의 모습 등을 한번씩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6. 30주년을 맞은 "진나빛",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요?

한상휘 : 제가 김회권 교수님 인터뷰를 했던 것처럼, 청년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줄 수 있는 훌륭한 목회자/교수님들을 찾아뵙고 인터뷰를 하는 기사를 싣는 활동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은혜 : 지금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전달하는 일을 충실히 해준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백 : 저도 학생기자의 부담을 잘 알고 있기에 뭔가 제시하기 조심스럽지만……ㅎㅎ 위에서 언급한 제100호에서 특집으로 앙케이트를 진행했었는데, 그와 같이 새로운 특집들을 기획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뉴미디어 시대에 맞춰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새로운 소통창구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장동원 : 선배 기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30년간의 좋은 글을 모아 선집을 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7. "진나빛" 독자 및 서기연 공동체에 하고 싶은 이야기

한상휘 : 한국, 그리고 서울대학교 내 기독인 청년 비율, 합계 출산율, 경제성장률, 취업률, 결혼율 등은 매년 내리막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많은 한국 청년들은 비교의 늪에서 나고 자라 어느 때보다 발달한 SNS와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허함과 박탈감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같은 상황이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살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신앙에 굶주린 소크라테스로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주신 큰 은혜이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지칠수록,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 하나님과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쌓아가는 인생을 사시길 바라며, 후배님들의 인생길이 그렇게 추억 가득한 여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은혜 : "진나빛"이 벌써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기연의 모든 사람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더라도 곳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며 그 깊은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백 : 캠퍼스 안의 다양한 자리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장동원 : 사랑합니다. 60주년에 봐요 :)

대학촌교회 50주년 기념 글

대학촌 선교회 지난 50년을 되돌아보며...

올해는 대학촌교회가 설립된 지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1974년 11월 24일에 대학촌교회가 설립되고 뒤이어 이를 포괄하는 법인체로서의 기독교 대학촌 선교회가 출범하게 되니 대학촌 선교회의 역사도 50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교회 설립 초기에 대학생 신분으로 교회에 출석하다가 젊은 나이에 장로의 직분을 받은 나도 40년간의 시무를 마치고 지난해 말 은퇴를 하게 되었다. 이제 은퇴 장로로서 반평생을 함께 한 선교회 역사를 되돌아볼 때, 참으로 감회가 새롭고,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된다.

대학촌교회는 서울대 캠퍼스 선교의 비전을 가진 서울대 기독 동문들과 믿음의 어머니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시작한 공동체이다. 교회 설립 초기에 어려운 점도 많았다. 교회가 교파에 소속되지 않아 담임목사를 모시기 힘들어서 오랫동안 설교목사체제로 운영된 적도 있었고.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에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분들도 옥합을 깨뜨리며 교회를 도왔다. 그동안 대학촌교회와 장학회, 신앙생활관 등을 통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양성되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다. 목회자들도 많이 배출되었고, 사회 각 부분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많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모태신앙인 나는 1972년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였는데 대학 시절은 나에게 많은 갈등과 방황을 가져다준 시기였다. 대학의 세속적인 문화 때문에 참으로 적응하기 힘들었고, 입학한 해부터 계속되는 반정부 시위로 인해서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당시 캠퍼스에는 신앙적으로 큰 부흥이 일어났다. CCC나 UBF 등 선교단체가 활발히 선교활동을 하였고, 서울대 기독학생회에도 많은 학생들이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신입생 시절부터 나는 기독학생회에 소속되어, 신앙의 선배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었다.

서울대가 종합화되면서 1975년 2학기부터 현재의 서울대 관악캠퍼스로 이전을 하게 되었다. 그때는 대학촌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이었는데 당시 교회는 신림9동의 작은 주택에서 유은상 집사님, 오성종 전도사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였다. 당시 대학촌교회에 속한 기독 동문들이 서울대 캠퍼스 복음화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였고, 서울대 기독학생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다. 이복영 장로님이 주관하는 25일 철야 기도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났다. 나는 자연스럽게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출석하기 시작하였고 방황하던 마음이 비로소 안정을 되찾았다. 성도들은 주일 예배가 끝나면 현재의 교회 부지에 올라와서 손을 잡고 기도하였다. 한편으로는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대 캠퍼스가 보이는 장소로서 당시에는 주택부지만 조성되었을 뿐 집이 전혀 없었던 곳이었는데 성도들은 캠퍼스 선교의 꿈을 안고 빈터에서 간절히 기도하였다.

1983년부터는 이진태 목사님이 임시 목사로 부임하여 대학촌교회를 조직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1983년 5월 14일에 서울대 기독선교회가 설립되었고, 7월 10일에는 교회 헌법이 제정되자, 1983년 11월 27일 교회 설립 9주년 기념예배시 유은상 장로님과 내가 장로로 임직을 받았다. 나는 당시 30살을 갓 넘은 나이였다. 사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교회의 필요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임직을 받았다. 그동안 장로직을 수행하면서 많이 부족하고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대학촌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특히 소천하신 이진태 목사님과 사모님, 백승진, 이종웅 목사님, 대학촌 선교회 이사장 이복영 장로님, 선교장학회 이사장 임종남 권사님, 상주수련원을 설립하고 운영하신 김진애 권사님의 아름다운 헌신을 잊을 수 없다.

그동안 1981년 11월 23일 설립된 서울대 선교장학회는 매 학기 10여명의 학생들에게 85차례에 걸쳐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다. 그리고 1994년 11월 27일 창간된 서울대 선교 소식지 "진리의 나의 빛"은 115호까지 발간되었으며, 2001년부터 개최된 서울대 선교를 위한 기도와 후원의 밤은 올해로 23회를 맞이하였다. 2022년 9월에는 대학촌 선교센터 '그 뜰'을 개관하여 선교사역의 기지로서의 역할을 시작하였다.

한편 2003년 3월에는 우리가 형제교회로 생각하는 서울대학교회가 설립되고 캠퍼스내에서 예배를 드리게 됨에 따라 캠퍼스 선교사역을 분담하게 되었다. 서울대학교회를 섬기시는 우규환, 강신후, 홍종인, 남승호 교수님께도 늘 감사를 드린다.

한편 교회가 어려운 시기도 많았다. 교회 내부의 갈등으로 분열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고,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였다. 애통한 심정으로 울며 기도하며, 장로로서 교회의 갈등을 어떻게 하든 봉합하고 교회를 지키려고 한 결단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기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

이제 대학촌교회는 임현우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여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바라기는 이 대학촌 언덕에서 사도행전의 역사와 1907년 평양대부흥과 같은 놀라운 부흥을 목격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교회를 떠났던 가정들이 돌아오고, 많은 방황하는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이 언덕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이 허다한 증인이 되어(히12:1), 경기장의 관중석에서 응원하듯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새로운 50년을 맞이하여 대학촌교회의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한마음이 되어, 설립 초기에 가졌던 캠퍼스 선교에 대한 비전과 청년 사역에 대한 열정을 이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한다.

성기문 (기독교 대학촌 선교회 이사장)

비전스쿨 수료 후기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대 비전스쿨 1기로 졸업하게 된 약학대학 제약학과 추수원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회 오전 예배에 다니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섬겨주시는 불어교육과 박동열 교수님의 추천으로 서울대 비전스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비전스쿨 커리큘럼을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접했던 성경 공부 주제뿐 아니라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정치, 예술, 법조계, 창업 등의 주제에 관해서 각 사회 분야에 진출해 계신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저를 끌리게 했던 것은 1월에 예정된 필드트립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성지순례를 가보고 싶었던 저에게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를 위한 프로그램이구나!'라는 기대감을 품고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 비전스쿨 1기 멤버들은 다양한 학교, 다양한 학과분들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점이 저에게 좋았던 것은 강의를 듣고 서로 나눔을 할 때 제가 때로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각자 놓인 다양한 상황 가운데 어떤 비전과 어려움들이 있는지 들으며 저의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강의하러 와주신 각 분야의 믿음의 선배들께서는 한 분 한분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간증해 주셨고 그 과정을 통해 얻은 깨달음에 대해서 나눠주셨습니다. 외교, 예술 등 약학 연구자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던 저에게는 생소한 분야임에도 선배들께서 각 분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도전을 받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필드트립으로 원래 계획했던 요르단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가지 못하고 대신 스위스, 런던, 파리 순으로 유럽 종교개혁지로 필드트립을 가게 됐습니다. 필드트립을 통해 종교 개혁지, 박물관과 미술관들을 방문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런던 대영박물관에서 갈대아 우르의 유적들과 앗수르의 우상들을 보며 성경 말씀의 역사적 배경들을 간접 경험할 수 있었고 칼뱅, 츠빙글리와 존 웨슬리가 살았던 곳을 방문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믿음의 선배들의 노력과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이방인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필드트립 일정이 약사 국가고시가 끝나고 바로 출발하는 일정이어서 휴식할 겨를도 없이 단체 여행을 가다 보니 체력적으로 심적으로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대중교통 하나를 이용하는 것도 어려움으로 느껴졌고 런던에서는 지갑을 도둑맞았다가 다시 찾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유럽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얼른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고향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친구도 없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내가 정말 이방인이라는 심정을 느꼈고 현재 서울대학교에 나오는 국제학생들과 많은 한국의 외국 유학생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겠구나' 생각하며 한국에 돌아간다면 그들의 마음을 좀 더 공감해 주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제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팀 프로젝트로 저는 '탈종교화 시대 대학 복음화에 대한 성찰'이라는 주제를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팀 내에서 많이 들어봤던 애즈베리 대학교의 복음 사역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었고 2023 애즈베리 대부흥에 관해서도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늘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과 이런 부흥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순종이 쌓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팀프로젝트 이후에 인턴십도 준비되었지만 저는 대학원 입학으로 인해 인턴십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약사국가고시 준비로 모든 강의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엠티도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끝까지 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전스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가도록 응원과 기도를 해주신 학교 선생님들과 동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비전스쿨을 통해 느끼고 배운 것을 삶에서 실천하고 기도로 캠퍼스와 세상을 품는 비전스쿨 졸업생이 되겠습니다.

추수원(약학대학 제약학과 졸업)

기독인대학원생모임(기대모) 엠티

서울대 기독대학원생모임(기대모)는 대학원생과 포닥연구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1년에 두 번 있는 엠티를 지난 3/22-23일 서울대기독인회관에서 진행했습니다. 엠티를 준비하고 진행한 소감을 다음과 같이 공유드립니다.

엠티 당일, 비가 엄청 많이 내려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오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 인간적인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비를 뚫고 엠티장까지 와주셨습니다. 저희 스태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오랜만에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적응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엠티를 준비한 입장에서 보람찼고 엠티가 점점 기대됐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인 레크레이션을 통해 많은 분들이 웃고 즐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다음 순서로 찬양 및 기도회 시간이 있었습니다. 엠티 바로 전날이 논문자격시험 면접이 있어서 피곤하고 지쳐있었지만, 제가 불안하거나 힘들 때 불렀던 찬양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콘티 선곡을 했고 같이 찬양 부르며 합심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할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것을 놓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기도를 할 때 많은 지체들의 기도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후 소그룹 교재 시간이 있었는데 많은 분이 솔직하게 본인들의 고민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고 특히, 많은 분이 광야와 같은 힘든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에서 훈련하셨듯이 우리도 광야에서 훈련하시는 것을 믿지만, 힘든 광야의 시간 속에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 기대모가 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곽성열(기대모 대표, 전기정보공학부 석박사통합과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학원생들이 한곳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를 통해 서로와 우리의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저에겐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통해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현재 상황이 어떻든 공통되었던 점은, 각자의 때에 맞추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움직이고 계심을 믿고, 은혜와 고난을 다 때에 맞게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결국 선한 방향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인영(기대모 부대표, 항공우주공학부 석사과정)

대학원생 신앙오티

올해 신앙OT는 처음으로 대학원 새내기들을 위한 자리도 함께 준비되었습니다. 학부에서 신앙OT를 준비했던 때을 떠올려보면, 대학원생 OT는 준비기간과 행사 당일 모두, 학부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학부생들보다 훨씬 다양한 삶의 맥락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오고, 학부생들보다 훨씬 여유가 없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찾아오신 분들과 교제하면서 학부 OT 때만큼이나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신앙공동체로 연결되는 것의 의미와 기쁨을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자 어떻게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누리며 살아왔는지, 지금 어떤 신앙의 고민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제게는 커다란 위로이자 즐거움이었습니니다. 대학원생들에게도 캠퍼스 안에서의 신앙의 동역자들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장 제 자신부터 그 필요를 느낍니다. 서로의 삶의 고민에 귀 기울여주고, 비전을 공유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을 누릴 동역자의 존재는 삶의 조건이 더 빡빡할수록 더 귀중하고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이후로도 대학원생 신앙OT가 지속되기를, 이를 통해 대학원생 신앙공동체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홍원의(전기정보공학부 석박사통합과정)

서울대 비전스쿨 2기 모집

서울대학교에 기독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학교가 있습니다. 〈서울대 비전스쿨〉인데요, 치열하게 공부하면서 또한 신앙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시대와 사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 학교입니다. 8개월 동안 각 영역의 훌륭한 크리스천 멘토들을 만나고, 해외 비전트립을 경험하며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비전스쿨에서 기독인 친구들과 함께 밀도있는 삶을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전스쿨 홈페이지에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https://www.snuvision.org/main/main.html

서울대 비전스쿨 2기 모집기간: 2024년 7월 1일(월)~8월 1일(목)

지원방법 및 커리큘럼은 아래 QR 참조

개 강 예 배

개강예배 찬양팀

광고 시간

다함께 하는 찬양

대표 기도

목사님 말씀 선포

예배 준비

예배 준비 중인 중앙위원들

즐거운 식교제_간기모

즐거운 식교제_새벽빛, 수의기연

즐거운 식교제_음기연, 미크모

찬양 중 기도

합심기도 시간